

중앙대, 챗GPT 프롬프트 경진대회 성료

✎ 이정환 기자 | ⓒ 승인 2023.06.29 15:39

생성형 AI 활용능력, 비판적 수용 능력 향상... 수상자 11명 선정



중앙대 챗GPT 프롬프트 경진대회 시상식.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인문콘텐츠연구소와 학술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챗GPT 프롬프트 경진대회’가 28일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능력을 증진하고,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생성형 AI 기술 수준과 문제점을 체험하며 비판적인 수용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대회는 예선전을 거쳐 본선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00여 명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50여 명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다. 10일 2시간 동안 진행된 본선을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등 총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28일 학술정보원 4층 미디어실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창의ICT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최태민 학생은 “공학 분야에서는 사실 판단이 중요해 챗GPT를 자주 이용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과값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학생이 많다는 점을 볼 때 아직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챗GPT의 추론 수준을 측정토록 한 본선에서도 기존 방식대로 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능력과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 대회는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학술정보원장은 “현재 챗GPT 이외에도 200개 이상의 생성형 AI 모델이 존재한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콘텐츠 편향성, 부정확한 정보 등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창의력과 논리력을 증진시키며 생성형 AI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